지역 소식통

정읍시의회, 민간 위탁 제도연구회 최종보고회

정읍시의회(의장 고경윤) 의원 연구단체인 '정읍시 민간 위탁 제도연구회'가 6일 정읍시 민간 위탁 제도개선 및 감사 방안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정읍시 민간 위탁 제도연구회는 서향경을 대표 의원으로 이만재,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오승현, 한선미 의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지난 3월 간담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연구 활동을 시작, 7월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연구 용역을 진행했었다.

이번 최종보고회에서 정읍시 민간 위탁 사업 현황 분석을 통해 민간 위탁 개선 방안 및 조례 개정 방안, 성과평가 및 감사 기준 등을 제시하였다.

서향경 의원은 "4개월간 연구 용역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가지고, 조례 정비, 성과평가 및 감사 기준을 마련하는 등 민간 위탁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정읍시의 선진 민간 위탁 제도를 마련, 우리 정읍시민들에게 효율적인 공공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제11회 지구촌 어울마당' 진행

정읍시는 지난 5일 시 실내체육관에서 '제 11회 지구촌 어울마당'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시민과 다문화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화합과 소통으로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 공동체 인식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다문화가족과 시민으로 구성된 밴드팀 공연을 시작으로 기념식, 장기자랑, 가족 레크레이션 순으로 진행됐다.

또한 세계나라 문화 체험, 자녀 사전지문등록, 정신건강 척도검사, 커피차, 꽈배기 나눔 등 다양한 부스를 운영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행사에 참석한 한 가족은 "세계문화 체험을 통해 다양한 정보도 얻고 온 가족들과 레크레이션을 즐기며 서로 친해지고 가까워지는 소중한 시간을 보냈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매력적인 홍보전시 '눈길'

고창군, 이탈리아 페스툼 국제고고학관광전… 전 세계인 사로잡아

고창군이 지난 2일부터 4일간 '이탈리아 페스툼 국제고고학관광전'에 참가해 세계유산 고창 고인돌유적과 유네스코 인정 7개 보물을 세계에 알렸다. 특히 매력적인 홍보전시 부스로 전세계인을 사로잡으며 100여개 부스 중 유일하게 표창장을 수여받는 영예를 안았다.

6일 고창군에 따르면 이번 전시회 참가는 2023년 문화재청 공모사업인 '세계유산 홍보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세계유산 고창 고인돌유적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전 세계에 전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2회 연속 한국 대표로 참가했다.

'한국의 세계유산, 고창 고인돌유적'을 주제로 한 전시공간에서는 △대형 LED 미디어월에서 펼쳐지는 고인돌이 들려주는 이야기 영상 관람 △해설사가 들려주는 세계유산과 고창 △고인돌 스크래치 페이퍼 체험 등 고창이 품은 유네스코 7개 보물도 홍보, 전시하며 방문객들의 높은 관심과 호응을 이끌어냈다.

특히 폐막식에서 고창군은 25개국 100여개 홍보부스 중 가장 혁신적이고, 매력적인 부스로 인정받으며 이탈리아 살레시노 광역시의원과 조직위원장 공동명의의 표창장이 수여됐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이탈리아 페스툼 국제고고학관광전 참가를 통해 세계유산 도시 고창의 품격을 높이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고창고인돌유적을 세계적으로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세계의 거석문화 속 고창고인돌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조명하여 고창고인돌유적이 세계적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로 25회째인 페스툼 관광전은 1998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는 세계 유일의 고고학분야 국제 전시회다. 유네스코와 세계관광협회, 이탈리아 문화유산부가 후원하며, 전세계 25개국에서 150여 명의 전시자와 100여회의 컨퍼런스와 미팅, 120여 명의 기자, 1만 여 명의 방문객이 참여하는 대규모 전시회다. /고창=김영식 기자

"친절한 민원응대 · 강풍피해 예방 · 럼피스킨 유입 차단"

이학수 정읍시장, '시민중심, 으뜸정읍' 구현 당부

정읍시는 6일 전 부서장이 참여한 가운데 영상 간부회의를 진행했다.

회의를 주재한 이학수 시장은 "시정 구호인 '시민중심, 으뜸정읍'을 구현하기 위해 민원 응대 시 친절 마인드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유기 민원이더라도 최대한 빨리 민원을 처리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라"면서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만큼 업무 마무리를 철저히 하고, 연초 계획을 점검하라"고 했다.

이 시장은 적극적인 현장행정으로 강풍 피해 예방과 럼피스킨 유입을 차단하라고 당부했다.

이 시장은 "5일부터 강풍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7일까지 비와 강풍예보가 있어 추가 피해가 일어날 수 있다"며 "피해 발생지는 신속하게 복구하고,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해 추가피해가 없도록 하라"고 했다.

이어 "소 럼피스킨병 유입 차단을 위해 적극적인 방역과 방제대책을 추진하라"며 "특히 신속한 백신접종으로 지역 내 발생을 예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 줄포만 노을빛 정원' 전북도 제2호 지방정원 등록

부안군 줄포면에 위치한 '부안 줄포만 노을빛 정원'은 지난 10월 31일 전라북도 제2호 지방정원으로 등록되었다. 전국에선 8번째 지방정원이다.

지방정원 등록 요건은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정원으로 10ha 이상 면적에 40% 이상이 녹지여야 한다. 또 정원관리 전담부서와 주차장, 체험시설을 비롯한 편의시설 등 지방 정원 운영관리 조례가 충족되면 시·도지사가 지정 등록할 수 있다.

부안 줄포만 노을빛 정원은 바다와 맞닿아 있어 노을이 절경인 곳으로

1996년 방조제를 쌓아 만든 부지에 2003년부터 생태공원 조성사업을 시작해 현재 31만2,600㎡의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군관계자는 추후 정원조성사업 등을 추진하여 면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였다.

정원 내에는 갯벌생태정원, 사계절정원, 바람동산, 화훼단지 등 여러 테마정원이 있으며 특히 가을에는 10만평에 달하는 갈대와 억새정원이 명소이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부안 줄포만 노을빛 정원 지방정원 등록은 국가정원 추진 공약사업의 첫 발이며, 앞으로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 등을 제공해 국가정원의 품격에 어울리도록 발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는 창의성과 실현 가능성, 경제성, 실용성, 효과성 등을 종합 평가해 최종 수상작 8건(시민 4건, 공무원 4건)을 선정하고 6일 소통의 날에 시상식을 진행했다

시민 정책제안 수상작 선정

정읍시, 수상작 8건… '펫산업 전문인력 양성' 우수상 등 시상

정읍시가 시민과 소통하는 시정을 실현하고 참신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적극 수렴하기 위해 추진한 하반기 시민참여 정책제안 페스티벌의 수상작을 선정했다.

시는 지난 7월 27일부터 8월 25일까지 정읍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창의적이고 실행 가능한 정책 제안을 공모했다.

이번 공모는 지역축제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 발굴을 주제로 한 특별주제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우리 주변 개선·시행해야 할 정책을 주제로 한 일반주제로 분야를 나눠 시행해 총 388건의 다채로운 제안이 접수됐다.

시는 창의성과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수상작 8건(시민 4건, 공무원 4건)을 선정하고 6일 소통의 날에 시상식을 진행했다.

시민 부문은 정읍 펫 산업 전문인력 양성(김민재)이 우수상을 수상했고 무질서한 시정 홍보물 방지를 위한 시청사 승강기 입구에 전자안내판 설치(최진), 난잡한 읍면동 행정게시판을 시인성 좋은 스마트 행정게시판으로 교체(김선희), 청년 면접 정장 대여 사업 활성화를 위한 편의 개선(김현수)이 장려상으로 선정됐다.

공무원 부문은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신용카드 결제 방식 개선(김소정)이 우수상, 제2청사 또는 외청근무자를 위한 본청 공유오피스 마련(홍현숙),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우미정), 복합놀이시설 '천사히어로즈' 사전 예약제 도입(이창현)이 장려상으로 최종 선정됐다.

시민 부문 우수상을 받은 '정읍 펫 산업 전문인력 양성' 제안은 반려동물 양육인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확산 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는 아이디어로 평가받았다.

공무원 부문 우수상을 받은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신용카드 결제 방식 개선' 제안은 절차 간소화로 효율적이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아이디어라는 평가다.

/정읍=김대환기자

부안군, 간부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

부안군은 권익현 군수를 비롯한 간부공무원 70여명을 대상으로 지난 3~4일 변산반도 생태탐방원에서 간부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을 진행했다.

이번 워크숍은 '혁신·적극행정 마인드 함양 및 신뢰-가치 기반 관계리더십 향상'을 주제로 간부공무원의 솔선수범을 통해 일하는 능동적인 조직문화를 실현하고자 추진됐다.

워크숍에서는 순천만의 신화를 이끈 선배 공무원이자 행정안전부 적극행정 및 지방행정의 달인으로 지정된 최덕림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총감독이 강사로 나서 다년간의 실무 경험을 통한 사례 중심의 특강으로 큰 호응을 얻었다.

또 강주원 이모션 영상사업부 감독과 박은선 휴먼스타 대표, 유웅서 액티브코어 운동센터 대표 등의 특강이 이어져 군정홍보 및 소통행정에 대한 역량 강화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지난 4일에는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받은 생태관광 브랜드를 활용한 체류형 탐방객 유치방안과 관련 국가예산 확보방안을 모색하는 등 미래 100년 지속가능한 부안발전을 위해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부안=김석진기자